

2018년 국가직 9급 한국사 가책형(4월 7일 시행) 총평 및 정답해설

해설 : 해동한국사 신영식 교수

[총평]

	고대 이전	고대	중세	조선	통합형	개항·일제 강점	현대사	합계	
정치		4 (광개토대왕, 신라 문무왕, 신문왕, 발해사 인식)	1 (서희의 외교담판)	2 (중종, 정조)	1 (지방 행정 제도)	5 (동학농민운동, 농광회사, 토지조사사업, 국가총동원법, 일제강점기 생활상)	2 (이승민과 김구의 활동, 박정희 장관기 경제발전)	15	
경제		
사회		.	1 (필관회)	.	.			.	1
문화		.	1 (진화(陳澹))	3 (혼일강리역대 국도지도, 성리학 동향, 견문기 순서)	.			.	4
합계	.	4	3	5	1	5	2	20	

2018년 국가직 9급 시험이 4월 7일에 치러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시험에서 백제 부흥 운동 과정에서의 지수신, 조선 전기 성리학 동향을 묻는 문제에서 서경덕의 태허(太虛)와 사단 칠정 논쟁과 관련된 정지운의 천명도, 고려시대 무신집권기 인물인 진화, 조선 성종 때의 견문기인 『표해록』 등 낯설고 생소한 용어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느낀 난도는 굉장히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어려운 용어와 주제들을 물어보면서 난도를 높였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함께 특정 주제와 쟁점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은 최근 5년 동안 치러진 시험 중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제의 출제 범위부터 살펴보면(가책형 기준) 고대사에서 4문항, 고려사에서 3문항, 조선사에서 5문항, 통합형 1문항, 근현대사에서 7문항이 출제되어 각 시대사별로 매우 고른 비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에서는 고대사 이전 선사 시대와 초기 여러 나라에 대한 문제는 제외되었고, 최근 주요 흐름인 근현대사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정치사에서만 4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광개토대왕의 왜구 공략에 따른 결과, 신라 문무왕대의 삼국 통일 과정, 신라 신문왕 재위기의 사실, 발해사가 우리 역사라는 증거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 중 특히 문무왕 재위기에 있었던 백제 부흥 운동의 실패와 관련된 지수신의 고구려 항복은 7급에서

나 출제될만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고려사의 경우 정치사에서는 서희 외교 담판 결과, 사회사에서는 팔관회, 문화사에서는 무신집권기 문장가인 진화(陳澣)와 동시대에 교류한 인물(이규보)의 저술(『동명왕편』)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진화(陳澣)와 교류한 인물을 찾는 문제는 오늘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리는 소위 만점 방지용 문제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사에서는 중종 대의 편찬 활동, 정조 재위기의 사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조선시대 성리학 동향의 순서, 해외건문기의 순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조선 시대 성리학 동향, 해외 건문기의 저술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는 평소 익숙하지 않은 낯선 내용과 용어(천명도, 태허, 표해록)가 제시되어 체감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었습니다.

한편 통합형으로 전근대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을 시대별로 나열하는 문제였기에 개념을 제대로 정리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현대사의 경우 문항 출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총 7문항)과 함께 주요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지식, 구체적인 연도(국가총동원법과 육군특별지원병령, 울산 정유 공장 완공 등)까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 점이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험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출제 방향과 학습방법을 가늠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최근 수험생들의 한국사 학습 흐름은 소위 ‘요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내용을 빨리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번 시험처럼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묻게 될 경우 ‘요약서’류의 학습법의 맹점이 크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한국사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도(正道)라 할 수 있는 기본서 중심의 학습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海東韓國史

1.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일신라-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하였다.
- ② 발해-전국 33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 ③ 고려-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 ④ 조선-향리 통제를 위하여 사심관을 파견하였다.

1. 정답 : ①

① 신라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국읍 주변의 읍락으로 구성된 여러 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국읍 및 주요 읍락들을 지방 행정 단위인 촌으로 만들었다. 군사·지리적으로 중요한 거점 지역의 촌에는 도사(道使)라는 지방관을 파견하여 관리하였지만, 촌의 행정은 원래 그 지역의 수장을 촌주로 임명하여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② 발해의 지방 행정 제도는 5경 15주 62주 100여 개의 현으로 이루어졌다. 전국 300여 개의 군현에 모두 수령이 파견된 것은 조선 시대이다. ③ 면리(面里)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등장하였으나 제도로서의 면리제는 조선 초기에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정착되었다. ④ 사심관은 고려 시대 때 중앙에 거주하면서 자기 출신지에서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임명권을 부여받고, 자기 출신지의 치안과 행정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게 한 것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2. 다음 (갑)과 (을)의 담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 했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강역에 들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이라 하겠는가.

- ① 9성 설치
- ② 귀주 대첩
- ③ 강동 6주 경략
- ④ 천리장성 축조

2.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거란 1차 침입(993) 때 서희와 거란 장수 소손녕의 담판 내용이다.

③ 거란의 1차 침입 때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주고 강화를 맺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거란의 목적을 파악한 서희가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① 동북 9성은 고려 예종 때 윤관이 여진을 정벌한 후에 축조한 것이다. ② 거란의 3차 침입(1018) 때 강감찬은 귀주에서 거란군을 거의 섬멸시켰는데, 이를 귀주(구주) 대첩이라고 한다. ④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 이후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기 위해 압록강에서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1033~1044).

3. 밑줄 친 ㉠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영락) 6년 병신(丙申)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였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奴客)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하였다. …(중략)… ㉠ 1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① 고구려가 신라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 ②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 ③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살해하였다.
- ④ 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3.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 내물왕의 요청으로 5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한 내용이다.

- ① 이후 고구려는 신라 구원 및 수호를 명분으로 삼아 신라 영토 안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더욱 강화하였다.
- ② 백제 근초고왕 대 고구려의 평양성(황해도 남평양)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전사하게 되었다(371). ③ 백제 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유역을 확보하였으나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다시 한강 하류 유역을 빼앗겼다. 이에 반발하여 554년에 신라와 관산성 전투를 벌였으나 이 과정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였다. ④ 400년 광개토 대왕의 신라 구원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후 금관가야의 세력은 위축되고 대가야 중심의 후기 가야 연맹이 출범하였다.

4.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나)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① (가)-5·1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 ② (가)-좌우 합작 7원칙을 지지하였다.
- ③ (나)-탁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④ (나)-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의장을 역임하였다.

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가)는 이승만, (나)는 김구이다.

- ③ 김구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명분을 들고 1945년 12월 28일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열고 전국 파업을 결의하면서 미군정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한반도의 정부로 승인하라고 요구하였다.

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5·10 총선거에 불참한 대표적 인물은 김구이다. ② 김구 중심의 한국독립당은 합작원칙을 세울 때는 신탁통치 문제와 입법기구 설립에 있어 부분적으로 반대를 하다, 결국 좌우합작 7원칙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찬성을 표하였다. 한편 한국민주당과 이승만은 과도 입법 의원 설치에만 찬성하고 좌우 합작 7원칙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거리감을 보였다. ④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의 초대 의장을 역임한 인물은 김규식이다.

5.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전에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正道)에 어긋나는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였다. ... (중략) ...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 ① 국제 교류의 장이었다.
- ② 정월 보름에 개최되었다.
- ③ 토속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④ 훈요 10조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5. 정답 : ②

제시된 (가)는 고려 성종 대 폐지되었던 팔관회이다.

- ② 정월 보름에 개최된 것은 연등회이며, 팔관회는 서경에서 10월에, 개경에서는 11월 15일에 행해졌다.
- ① 개경의 팔관회는 소회일(음력 11월 14일)과 대회일(음력 11월 15일) 양일에 걸쳐 펼쳐졌다. 15일에 열리는 대회일 행사는 외국인의 조하(朝賀)를 받은 후 펼쳐지는 연회가 중심이었다. 이 기간 동안 송(宋)나라 상인, 탐라인, 여진인들이 차례대로 들어와 조하하고 공물을 바친 후 성대한 연회가 벌어졌다.
- ③ 팔관회는 본래 불교의 팔계에 기초한 행사였으나 부처뿐 아니라 산신, 물의 신, 용의 신 등 토속 신에 대한 제례를 지내고, 각종 오락을 통해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축제로 변하였다. ④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의 6조에서는 연등회와 팔관회를 꼭 실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은 하나이나 냇물의 갈래는 만 개가 된다. ... (중략) ...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 비추어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달이라는 것은 태극이요, 태극은 나이다.

- ① 『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② 갑인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며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 ③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다.
- ④ 민간의 광산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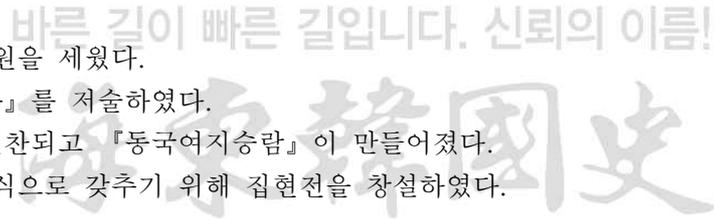
6.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정조가 저술한 ‘만천명월주인옹자서’이다.

- ① 서호수는 정조의 명에 따라 조선의 풍토에 적합한 농법을 찾기 위해 『해동농서』를 저술하였다. 책의 편찬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사정으로 보아 대개 1798~1799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2차 예송인 갑인예송(1674)에서 왕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자의대비의 기년복(1년복)을 주장한 것은 현종으로, 남인이 현종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다.
- ③ 조선 숙종은 의주에 강감찬 사당을 건립하였고 충청도 아산에 세워진 이순신 사당에 ‘현충’이란 호를 내려 백성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은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자 민간에 광산 채굴을 허용한 설점수세제 실시는 효종 대이다.

7. 밑줄 친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에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중략)… 이륜행실(二倫行實)로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에 간행할 것을 청했습니다. 삼강이 중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모두 알고 있으나, 봉우·형제의 이륜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 ②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
- ③ 『국조오례의』가 편찬되고 『동국여지승람』이 만들어졌다.
- ④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 집현전을 창설하였다.

7. 정답 : ①

밑줄 친 ‘국왕’은 『이륜행실도』가 간행된 조선 중종이다.

- ① 조선 중종 대인 1543년 풍기 군수 주세붕이 안향의 옛집에 교육 기능과 명현(明賢)을 봉사(封祀)하는 사당 기능을 하는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 ② 『금오신화』는 김시습(1435~1493)이 평양·개성·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중의 생활 감정과 역사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김시습이 31세에서 37세까지 경주 금오산에 머물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 ③ 『국조오례의』(1474)와 『동국여지승람』(1481)이 완성된 것은 조선 성종 대이다.
- ④ 학문 연구기관으로서 집현전을 설치한 것은 세종이다.

8. 다음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중략)… 등을 명할 수 있다.

- ① 물자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를 확대하였다.

- ②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하였다.
- ③ 금속류회수령을 제정하여 주요 군수 물자를 공출하였다.
- ④ 국민징용령을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 동원을 실시하였다.

8.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1938년 5월에 시행된 국가 총동원법이다.

- ② 육군 특별 지원병령은 193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4월부터 실시되었다.
- ① 물자통제령에 따른 배급제 실시는 1941년, ③ 무기 생산에 필요한 금속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금속 류회수령은 1941년, ④ 국민징용령 제정은 1939년의 일이다.

9.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은?

방금 안핵사 이용태의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 『승정원일기』 -

↓

(가)

전봉준은 금구 원평에 앉아 (전라) 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

- 『갑오약력』 -

- ① 논산에서 남·북접의 동학군이 집결하였다.
- ②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 ③ 동학교도가 궁궐 앞에서 교조 신원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 ④ 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국안민을 위해 쫓기하라는 통문을 보냈다.

9. 정답 : ④

(가) 시기는 동학 농민 운동 소위 ‘1기(고부민란기)’와 ‘3기(전주화약과 집강소 설치)’의 사이이다. 1894년 1월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맞서 전봉준의 주도 하에 일어난 고부 민란으로 정부에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하였으나, 이용태가 봉기의 책임을 농민과 동학교도에게 전가시켰으며 동학교도의 명단을 작성해서 이들을 체포하고자 했다. 동학 농민군은 전주화약 체결 이후 전라도 중심으로 집강소를 설치하였고, 전봉준의 우도, 김개남의 좌도, 손화중·최경선의 광주 일대로 나뉘어져 있었다.

④ 안핵사 이용태로 인해 전봉준은 손화중, 김개남과 함께 4,000여 명의 농민군을 규합하고, 무장에서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을 위해 일어서자는 내용의 반봉건·반외세적 창의문과 격문을 발표하였다(3. 20). 백산에서 조직을 강화한 농민군(백산 봉기)은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3. 26)

① 1894년 6월 23일 청·일 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 간섭을 강화하자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제2차 동학 농민 전쟁을 일으켰다. ② 우금치 전투(1894. 11)는 남·북접이 연합하여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제2차 농민 전쟁(1894. 9~12) 당시의 사실이다. ③ 최계우의 명예 회복과

동학 포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서울 복합 상소는 1893년 2월의 일이다.

10. (가) 기구가 존속한 시기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로 편입할 수 있다.

- ① 조선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 ②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 ③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구매되는 담배
- ④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 무관 학교 출신 청년

10. 정답 : ②

제시된 (가)는 토지 조사 사업(1912~1918)을 위해 설치된 임시 토지 조사국이다.

- ②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연재한 소설 『무정』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 까지 126회에 걸쳐 연재한 장편 소설이다.
- ① 조선청년연합회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각 지역에 설립된 청년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 운동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920년에 조직되었다.
- ③ 연초전매령은 1921년 4월에 제정되어 7월부터 실시되었다.
- ④ 의열단은 만주 길림성에서 1919년 11월에 결성되었다.

11. 밑줄 친 '이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02년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 학자들에 의해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권근의 글에 의하면 중국에서 수입한 '성교광피도'와 '혼일강리도'를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도를 합해서 제작하였다고 한다.

- 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하였다.
- ②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었다.
- ③ 이 지도의 작성에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이 있었다.
- ④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11.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다.

- ④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화에 공헌한 지도는 조선 영조 대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이다.
- ①, ②, ③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아라비아 지도학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원의 지도를 참조하고 여기에 한반도 지도를 덧붙여 만든 것이다.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 지도이며, 유럽·아프리카·일

본 등이 그려져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실제보다 크게 그려 진취적인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12.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왕 원년 : 소판 김흠돌, 파진찬 흥원, 대아찬 진공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사형을 당하였다.
- 왕 9년: 달구벌로 서울을 옮기려다 실현하지 못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였다.
- ②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였다.
- ③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 ④ 관료에게 지급하는 녹읍을 부활하였다.

12.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신라 신문왕 대의 김흠돌의 난, 그리고 달구벌 천도 시도에 대한 내용이다.

- ③ 신문왕은 국학을 설립하여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였고, 중앙 집권적 관료 정치가 발달하면서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 ① 소지왕 9년(487)에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국내의 기간도로인 관도(官道)를 수리, 증축하였다.
- ② 통일 신라 효소왕 대에는 경주에 서시와 남시가 설치(695)되었다.
- ④ 신문왕 대에는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였고, 이후 경덕왕 대 녹읍이 부활하였다.

13. 다음은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적절한 것은?

- 중국 : 소수 민족 지역의 분리 독립 의식을 약화시키려고, 국가라기보다는 당 왕조에 예속된 지방 민족 정권 차원에서 본다.
- 러시아 : 중국 문화보다는 중앙 아시아나 남부 시베리아의 영향을 강조하여 러시아의 역사에 편입시키려 한다.

- ① 신라와의 교통로
- ② 상경성 출토 온돌 장치
- ③ 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감
- ④ 3성 6부의 중앙 행정 조직

13.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발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사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찾는 문제이다. 즉,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물이나 유적을 고르면 된다.

- ② 발해 문화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보여 주는 근거로는 대표적으로 굴식돌방무덤으로 지어진

정혜공주묘, 상경성의 온돌 장치, 정혜공주묘의 돌사자상,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등이 있다.

① 신라도는 발해가 신라와의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③, ④ 유학 교육 기관인 주자감과, 3성 6부의 중앙 행정 조직은 모두 당나라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14.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줄 친 ㉠~㉣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 서쪽을 정벌하고 ㉡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 들여 멀고 가까운 곳을 모두 안정시켰다.

- 『삼국사기』 -

- ① ㉠-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 ② ㉡-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 ③ ㉢- 백제 부흥 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
- ④ ㉣-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14. 정답 : ④

④ 백강구 전투(663)에서 승리한 나당 연합군은 그간 포위하여 고립시켜 놓았던 회복군의 총본영인 주류성을 일제히 공격하였다. 주류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그에 따라 백제 부흥군의 잔여 세력은 기세가 크게 꺾여 왜국으로의 망명길에 올랐다. 한편 백제 부흥군의 잔여 세력이었던 지수신(遲受信)이 홀로 임존성에서 항거했지만 그 역시 흑치상지에게 패배하고 고구려로 도망감으로써 백제 부흥군의 실질적인 활동은 끝난다.

① 태종 무열왕 대인 660년 태자였던 문무왕 역시 백제 정벌에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② 문무왕(661~681)은 고구려를 멸망(668)시켰고,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676)함으로써 삼국을 통일하였다. ③ 주류성의 복신과 도침, 임존성의 흑치상지 등 백제 부흥 운동은 모두 문무왕 재위기에 일어났다. 그러나 부흥 운동 세력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여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이에 반발한 풍왕이 복신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강 입구에 진입하였으나, 백강 입구 전투에서 패배하면서(663) 백제 부흥군의 기세가 크게 꺾여 결국 나·당 연합군에게 진압당하였다.

15.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회사의 고금(股金, 주권)은 액면 50원씩이고, 총 1천만 원을 발행하고, 주당 불입금은 5년간 총 10회 5원씩 나눠서 낸다.
○ 이 회사는 국내 진황지 개간, 관개 사무와 산림천택(山林川澤), 식양채벌(殖養採伐) 등의 사무 이외에 금·은·동·철·석유 등의 각종 채굴 사무에 종사한다.

- ① 종로의 백목전 상인이 주도가 된 직조 회사였다.
- ② 역둔토나 국유 미간지를 약탈하려는 국책 회사였다.
- ③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 회사였다.

④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척식 회사였다.

15.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회사’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반대하며 활동한 농광회사이다.

③ 일제가 대한제국으로부터 획득하고자 했던 이권 중에 대표적인 것은 황무지 개간권이었다. 일제는 러일 전쟁 시기 한국에서 획득해야 할 권리로서 황무지 개간권을 치안·국방·외교·재정·교통·통신 등 국가 행정적인 분야와 동일한 비중으로 보고 접근해 왔다. 그리하여 1904년 6월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통해 정식으로 한국 외부(外部)에 황무지 개척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각층에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러한 운동에 힘입어 중추원 부의장 이도재, 김종한, 안필중 등의 유력자가 주동이 되어 문제의 황무지를 한국민의 자력으로 개간할 목적으로 농광회사(農鑛會社)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① 1900년 5월 서울 종로에 세워진 종로직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청일 전쟁 이후 일본산 면포가 조선 시장에 대거 유입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의 백목전(白木廬) 상인들은 직접 면포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가 근대적 상공업을 진흥시키려는 의도와 부합하였고 1900년 종로직조사가 설립되었다. ② 일제는 그들이 장악한 황무지 및 미개간지와 역둔토를 기반으로 1908년에 국책 회사인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 식민지 경영을 추진하였다. ④ 1898년 서울 시전 상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황국 중앙 총상회에 대한 서술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6. 조선 성리학의 학설이나 동향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기를 중시하여 경장(更張)을 주장하였다.
ㄴ.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허(太虛)설’을 제기하였다.
ㄷ. 정지운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사단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ㄹ. 향약 보급 운동과 함께 일상에서의 실천 윤리가 담긴 『소학』을 중시하였다. |
|---------------------------------------------------------------------------------------------------------------------------------------------------------------------------|

- ① ㄴ→ㄱ→ㄹ→ㄷ
- ② ㄴ→ㄹ→ㄱ→ㄷ
- ③ ㄹ→ㄴ→ㄷ→ㄱ
- ④ ㄹ→ㄷ→ㄴ→ㄱ

16. 정답 : ③

ㄹ. 16세기 초 중종 대 활약한 조광조(1482~1519)의 개혁 정치와 관련된 서술이다. 조광조는 성리학적 사회 윤리를 정착하고자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규정하여 생활화는 차원에서 『소학』 및 향약 보급 운동 등을 추진하는 등의 정치 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519년(중종 14) 훈구파들이 일으킨 기묘사화로 전라도로 유배를 당하였다가, 결국 사사(賜死)되었다. ㄴ. 이(理)보다는 기(氣)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던 서경덕(1489~1546)에 대한 내용이다. 서경덕은 우주의 본체를 장재와 같이 태허(太虛)로 파악하고, 태허의 담연무형(淡然無形)한 것을 선천(先天)의 기(氣)로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만물로 형상화된 것을 후천(後天)의 기로 인식하여 모든 것이 하나의 기 운행으로 보았다. ㄷ.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 논쟁에 대한 서술이다. 명종 14년(1559)부터 21년까지 8년 동안 지속된 이 논쟁의 발단은 정지운이 권근의 『입학도설』과 권채의 『작성도(作聖圖)』 등의 영향을 받아 작성한 『천명도(天命道)』

를 이황이 수정하면서부터이다. 뚜렷한 결말을 보지 못하고 끝난 이 논쟁은 양자가 서로 강조하는 바가 달랐으며 동시에 주자의 심성론 자체가 완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기대승이 주자의 이론 자체에 충실하고자 했다면 이황은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시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7. 율곡 이이(1501~1570)에 대한 내용이다. 이이는 경험적 현실 세계를 중시하면서 국가도 달라진 시대에 맞게끔 제도를 고쳐야 하며 바로 이것이 경장(更張)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이는 선조 초반부터 자신의 경장론을 담은 『동호문답』이나 『만언봉사』 등의 시무 관련 상소를 올렸다.

17.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 외곽의 토막촌에는 빈민이 살았다.
- ② 변화가에서 최신 유행의 모던걸과 모던보이가 활동하였다.
- ③ 몸빼를 입은 여성들이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였다.
- ④ 상류층이 한식 주택을 2층으로 개량한 영단 주택에 모여살았다.

17. 정답 : ④

④ 영단 주택은 1940년대 들어 도시민, 특히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지은 일종의 연립 주택이었다.

① 서울 변두리에는 맨땅 위에 자리를 깔고 쉼이나 거적때기로 지붕과 출입구를 만든 원시적 움막집인 토막집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토막살이를 하는 사람은 1937년 서울(경성부)의 총인구 70여만 명 중에서 15,000여 명에 달하였다. ② 1920년대 말 서울 거리에는 ‘모던 걸’과 ‘모던 보이’로 불리는 젊은 남녀들이 활보하였다. 당대의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에는 하이힐과 양산, 손가방, 새로운 화장법, 손목시계로 치장하고 다니는 ‘모던 걸’과 양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다니는 ‘모던 보이’들을 소개하였다. ③ 1940년대 전시 체제가 확대되면서 여성들은 치마 대신 일본 농촌 여성의 작업복인 몸빼라는 바지를 입고, 근로보국대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수행해야 했다.

18.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해외경제협력기금) 2억 달러, 그리고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나)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 (중략)...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 ①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 ②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건설되었다.
- ③ 국가 기간 산업인 울산 정유 공장이 가동되었다.
- ④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18. 정답 : ③

제시된 자료 (가)는 1962년 작성된 김종필·오허라 메모, (나)는 1966년 체결된 ‘브라운 각서’이다.

③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정유 공장 건설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맞춰 대한석유공사를 설립(1962)하였고, 대한석유공사는 1963년 울산에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 건설에 돌입하였다. 1963년 12월 완공된 정유공장은 이듬해 시운전을 거쳐 1964년 4월 정상가동에 들어가면서 석유류 제품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다.

① 경부 고속 국도의 개통은 1970년의 사실이다. ②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전라북도 이리시(지금의 익산)와 경남 마산시가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개발되었고, 1973년초 완공되었다. ④ 국제 연합(UN)과 미국의 원조 자금을 지원받아 1955년 착공한 충주 비료 공장은 1961년 준공되었다.

19.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은?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 ① 삼국사기
- ② 동명왕편
- ③ 제왕운기
- ④ 삼국유사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9.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고려 시대 문장가인 진화(陳澹)의 시이다.

② 그의 생몰년은 당대의 기록이 미비하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200년 국자감시에 합격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이후 벼슬이 한림과 목사에 이르기도 했다고 한다. 진화는 이규보와 함께 빠른 속도로 시를 짓는 주필의 대가로 문인들의 칭송을 받았다. 한림별곡의 '이정언 진한림 쌍운주필(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이라는 대목에서 이정언은 이규보를 말하는 것이며, 진한림은 바로 진화를 말한다. 한편 이 시는 그가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면서 썼다고 알려져 있다. 즉 송이 몰락하고 금이 아직 미개한 반면, 고려가 문명의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규보의 『동명왕편』과 비슷한 패기가 넘쳐흐르고 있다.

20. 다음 해외 견문 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표해록』
- ㄴ. 『열하일기』
- ㄷ. 『서유견문』
- ㄹ. 『해동제국기』

- ① ㄱ→ㄴ→ㄹ→ㄷ
- ② ㄱ→ㄹ→ㄷ→ㄴ
- ③ ㄹ→ㄱ→ㄴ→ㄷ
- ④ ㄹ→ㄷ→ㄱ→ㄴ

20. 정답 : ③

르. 『해동제국기』는 1471년(성종 2) 신숙주가 일본의 지세(地勢)와 국정(國情), 교빙내왕의 연혁, 사신 관대에접의 절목을 기록한 책이다. ㄱ. 『표해록』은 1487년(성종 18) 제주에 추쇄경차관으로 파견되었던 최부가 부친상을 당해 강진으로 향하던 중 표류하여 중국에 도착, 육지로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ㄴ. 박지원은 1780년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및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ㄷ.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정치, 교육, 법률, 행정, 경제, 사회, 군사, 풍속, 과학기술, 학문 등 다양한 분야를 기록한 것으로 1889년에 저술을 완성하여 1895년에 출간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